

페퍼스, '미완의 퍼즐' 라이트 공격수 누굴 잡을까

프로배구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 오늘 시작... 13일 드래프트 금지약물 소지 혐의 리드 귀국 속 박정아와 함께 '좌우 쌍포' 역할 기대 캣벨·야스민 한국행 재도전... 쿠바·세르비아 대표 출신 등 44명 참가

광주 시페퍼스가 공격의 핵심 아포짓 스파이커(라이트)로 어떤 선수를 지목할지 주목된다.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박정아와 짝을 이뤄 오른쪽 윙 공격을 도맡을 공격수이기 때문이다. 아헨 김 감독 등 광주 시페퍼스 구단 관계자는 10일 프로배구 여자부 6개 구단 감독 등과 함께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트리아아웃은 11일부터 13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하산 도안 스포르 콤플렉스(Hasan Dogan Spor Kompleksi)에서 진행된다. 선수를 최종 낙점하는 드래프트는 트리아아웃 마지막 날인 13일 열린다. 페퍼스는 아포짓 스파이커를 낙점해야 한다. 니아 리그가 금지약물 소지혐의로 시즌 중 귀국할 탓에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국내 프로배구에서 아포짓 스파이커는 외국인 선수 전담 포지션이다. 국내 선수 중에는 아포짓 스파이커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뽑아야 한다. 이번 트리아아웃에 참가하는 44명 선수 대부분이 아포짓 스파이커인 이유다. 페퍼스는 타 팀들과도 눈치작전을 벌여야 한다. IBK기업은행, KGC인삼공사, 현대건설도 아포짓 스파이커를 선발한다. 두 시즌 연속 꼴찌를 해 페퍼스는 지명 우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드래프트는 7개 구단이 지난 시즌 최종 성적에 따라 각기 다른 수의 구슬을 넣은 뒤 추첨을 통해 지명순서를 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7위 페퍼저축은행은 35개, 6위 IBK기업은행은 30개, 5위 GS칼텍스는 25개, 4위 KGC인삼공사는 20개, 3위 현대건설은 15개, 2위 흥국생명 10개, 1위 한국도로공사는 5개의 구슬을 부여받는다. 페퍼스는 산술적으로 1순위 지명권을 뽑을 확률이 25%에 달한다. 트리아아웃에는 2022-2023시즌 한국도로공사를 우승으로 이끈 캐서린 벨(등록명 캣벨)과 흥국생명에서 뛰던 엘레나 마르제노비치(등록명 엘레나)가 재도전한다. 2021-2022시즌 현대건설 정규리그 1위를 견인했으나 지난 시즌 허리 부상으로 현대건설을 떠났던 야스민도 참가한다. 쿠바 대표팀 출신 팔라 달리라, 세르비아 대표팀에서 뛰었던 반야 사비치 등도 한국행에 도전한다. 미국프로야구 '데전드 투수' 랜디 존슨의 딸인 윌로우 존슨도 트리아아웃에 참가한다. 존슨은 아버지처럼 왼손을 쓰는 아포짓스파이커로 2022년 V리그 문을 두드렸지만, 지명받지 못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모마



야스민



캣벨



해머던지기 목포시청 박서진



세단뛰기 장흥군청 김장우



포환던지기 여수시청 정일우

전남 육상 선수들 항저우 AG 출전 '청신호'

박서진 해머던지기·김장우 세단뛰기·정일우 포환던지기 KBS배 우승

박서진(목포시청), 김장우(장흥군청), 정일우(여수시청)가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1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 겸 국가대표 선발전대회에서 박서진, 김장우, 정일우가 금메달을 따냈다.

박서진은 여자일반부 해머던지기 1차에서

55.22m, 2차에서 56.71m, 4차에서 56.72m를 기록했다. 이어 5차시점에서 60.12m를 던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일반부 세단뛰기에 출전한 김장우는 16.37m를 뛰어 16.19m를 기록한 유규민(익산시청)과 15.37m의 이민재(한국체육대)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장우는 종전기록인 16.31m를 뛰어 넘어 대회신기록도 달성했다.

정일우는 남자일반부 포환던지기에 출전해 17.81m를 기록, 심준(국군체육부대·17.65m), 지현우(파주시청·17.26m)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수시청 김은미는 여자일반부 1만m에 출전해 34분54초54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 금메달을 수확한 3명은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 메달을 추가하면 오는 9월에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요키치 '트리플더블' 덴버, 서부 파이널 진출 '1승만 더'

미국프로농구(NBA) 덴버 너기츠가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간판 센터 니콜라 요키치를 앞세워 피닉스 선수를 완파했다.

덴버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볼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NBA 서부권 퍼런스 플레이오프(PO) 2회전(7전 4승제) 5차전 홈 경기에서 피닉스를 118-102로 이겼다.

정규리그 1위 덴버는 4위 피닉스를 상대로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서 서부 콘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1승을 남겼다.

덴버는 3쿼터에서만 39점을 몰아넣으며 사실상 승패를 결정지었다.

요키치는 플로터와 레이업, 3점 슛까지 연달아 림을 갈라 피닉스와의 격차를 순식간에 벌렸고, 3

쿼터에서 17득점과 2블록을 기록했다.

요키치는 29점 13리바운드 12어시스트를 수확해 PO에서만 개인 통산 10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1960~70년대 전설적인 센터 윌트 체임벌린과 이 부문 타이를 이뤘다.

벤치에서 시작한 브루스 브라운이 25점으로 뒤를 받쳤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3점 5방 포함 19점 8리바운드로 외곽포를 가동했다.

양 팀의 6차전은 1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풋프린트 센터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영암서 짜릿한 카트 질주 펼친다

문체부장관배 'KIC 카트 레이싱 컵' 대회 14일 개최

오는 14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국제카트경주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KIC KART RACING CUP' 대회가 열린다.

이날 개막전을 시작으로 9월 24일까지 총 4라운드 진행될 예정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이 대회는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로 승격된 후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국내 최대 카트대회이다.

우리나라 모터스포츠를 이끌어 나갈 미래 국가대표 드라이버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 광주는행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대회 주관사인 전남개발공사 장종모 사장은 "이 대회가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꿈나무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관계자뿐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은 지난해 대회 장면.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3관	문재인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스트리머
4관	드림
5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버림개비,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6관	드림
9관	문재인입니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7관 씨네키움	존 워 4, 유령지구2
8관 씨네키움	스즈메의 문단속, 리버문드, 칠중주: 흥권 이야기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6

즐거움 문화산책